

완도군, 친환경 양식시설 현대화 추진



우리나라 수산양식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완도군이 친환경 양식 시설 구축 및 첨단 자동화 시스템 시설 개·보수 등으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지난 3월 29일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79명의 사업자를 선정해 올해 양식시설 현대

화 지원사업에 모두 208억(융자167억, 지부담41)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22억이 늘어난 208억으로, 전남지역의 사업비 중 절반이 넘는 사업비가 완도군에 배정되어 수산양식산업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총 79명 사업자 선정해 208억원 지원키로 전남 사업비 50% 배정 '수산양식산업 메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시장 완전개방 이전에 고부가가치의 양식품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산양식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연 1%, 3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사업완료 후 대출실행 심사를 통해 지구별 수형에서 용자금 실행이 가능하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해는 소비부진, 생산과다로 인해 포화상태가 된 전북 양식산업의 조정을 위해 전북 가두리 제작 지원을 제외하고 광어, 김 등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지원에

우선했다"며 "어업인들이 현대화사업으로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장환경을 개선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자 79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업인은 "국제인증 획득하여 완도 명품광어 생산을 위해 양식장 신축 자금을 신청했었는데 큰 도움이 될 같다. 이제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 사업대상 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폐포고목 폐기 부산물 '우드칩' 재활용 일석이조 효과

진도군이 포고버섯을 재배하고 난 뒤 쓸모가 없어진 폐포고목 부산물에 대해 파쇄기로 3~4mm 크기의 나무 조각인 '우드칩'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목재 파쇄장의 톱밥과 우드칩 15,355포(40kg/1포)를 생산, 1포당 2,000원원의 가격으로 판매해 3,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군은 우드칩으로 생산 지역 농가에 판매해 세외 수입은 물론 농가들에게는 퇴비로 활용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포고재배 농가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포고 재배지 현장에 직접 목재파쇄기를 설치, 노지와 하우스 내 참나무 폐포고

목을 운반한 후 파쇄기에 투입, 우드칩을 생산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우드칩은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토양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며, 겨울철 지표면의 동결을 막고,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주는 등 수목 관리에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우드칩을 재활용하여 환경 친화적 녹지 관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 등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수목 부산물을 활용한 우드칩 생산을 확대해 폐포고목 처리의 고민을 해결하고 세외수입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목포시, 내일 '도시재생 청년창업' 선포식

원도심 로데오광장서... "청년 꿈 실현 지속 지원"

목포시는 오는 6일 원도심 로데오광장에서 '도시재생 41인 청년창업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창업아이템을 알리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오후 6시부터는 창업 홍보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콘서트는 창업자들의 지난날과정을 담은 영상, 창업 멘토의 성공 노하우 전수 어쿠스틱 밴드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7~8일은 수군문화축제가 열리는 노적봉 인근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목공예·가죽공예·드

론·VR 등 체험관과 각종 음식과 음료를 시식하고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시는 청년이 창업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지원하고 잠재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9개월 동안 41개소를 개점했다.

'문화예술 및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관광루트 테마거리 게스트하우스 등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다.

차 없는 거리와 수문로 빛의 거리 일원에 다양한 업종(문화예술·외식·서비스·IT)의 역량 있는 청년창업자를 심사를 통해 선정해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과 접목시킨 청년창업을 통해 잠재된 원도심이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취업난을 겪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친환경 범씨 소독 생산비 절감효과 '톡톡'



장흥군은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비 절감과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범씨소독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범씨 소독

전 소금물 가리기를 통해 충실한 종자를 선별한다.

이후 친환경 재배 단지는 온탕소독을, 일반 재배 단지는 범씨 발아

친환경 쌀 생산비 절감·유기농업 확대 범씨소독 연시회 개최 온탕소독 후 석회유황 범씨 소독하면 방제효과 81→99% 향상

기를 통한 적용 약제를 선택해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유기농) 재배 단지에서는 온탕소독 후 석회유황 범씨 소독을 실시하면 방제효과를 81%에서 99%까지 높일 수 있다.

석회유황은 가격이 저렴하고 농업인이 쉽게 자가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독약에 저항성이 발생하지 않아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매주 수요일을 '전 직원 현장방문의 날'로 지정하고 친환경닥터119를 운영한다.

4~5월 모내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석회유황을 이용한 친환경 범씨소독 기술지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 및 유기농업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장흥=김흥필 기자

무안군 "심뇌혈관질환 탈출 건강 장수"

무안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10개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총 370회에 걸쳐 건강특화사업 "심뇌혈관질환 탈출 건강장수" 프로그램을 운영 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주민에게 인지시키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여 건강생활 실천 능력을 높이기 위해 특화사업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맞춤형 보건교육(영양, 안전, 정신건강 등), 신체활동, 체형교정,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참여자의 사전·사후



신체 기능 측정 및 건강인식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 모두가 무병장수하는 행복무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